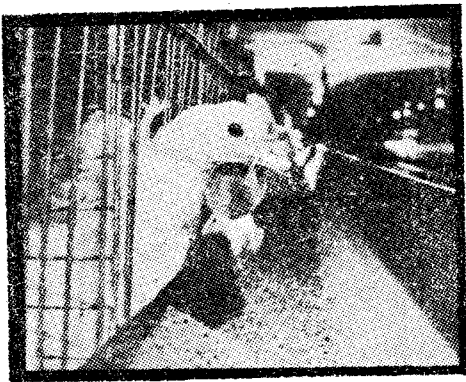


여름철 육추기

봄철보다 불리한가

□ 취재부 □



◆종래 우리 나라 산란용 초생추의 사육 경향을 보면 춘분을 전후한 3월에 편중해 있으며 6월부터 8월에 이르는 하절기에는 가급적 육추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의 근거는 더운 여름철에는 고온다습으로 인하여 사료의 섭취량이 적고 계사 바닥에 각종 세균이 번성하여 장(腸)내 질환이 다발하여 병아리가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본지 기자는 천호부화장 상무 김영환씨를 찾아 대담으로 여름철 육추의 장단점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여름철 육추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더위로 인한 고온(高溫)과 장마로 인한 다습(多濕)을 가급적 방지하는 문제이다.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가져와서 2주령까지는 고온다습으로 인한 피해가 별로 없으나 그 이후부터는 병아리가 요구하는 온도·습도보다 대기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계사내의 환기가 잘 안 된다든지, 계사 바닥이 곧 습해져서 콕시듐 원충 및 세균으로 인한 소화기성 질환으로 병아리의 발육이 균일하지 않고 폐사율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름추가 가을 겨울추보다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대책만 세우면 겨울추보다 여름추가 훨씬 기르기 쉽다고 생각한다.

고온에 대처하기 위한 육추상의 사양관리 방법을 든다면?

병아리 2주령(14일령) 이후부터는 서서히 낮 급온을 폐지하고 밤에만 급온해야 한다. 일령이 지남에 따라 가급적 육추실 온도를 속히 내려서 25일령 정도부터는 쾌온하도록 권하고 싶다. 그 이후부터는 계사 내부를 가급적 시원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사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 것도 계사 기온을 낮추는 한가지 방법이 되며 한 참 더운 12~4시경에는 계사 지붕이나 내부벽에 물을 뿌려서 일시적으로 계사 기온을 낮추어야 한다.

계사 구조면으로 볼 때 육성사 지붕에는 짚·

왕겨·암면 등을 넣어 단열이 잘되게 하고 벽은 윗쪽과 아랫쪽에 각각 창문을 내어 환기가 잘되게 한다.

병아리가 20일령이 지나면 계사의 반정도 되는 면적에는 지면에서 1.5자 높이에 굵은 철망을 깔아 철망 마루를 만들어 주고 철망 위에는 1.5치 각재를 1자 간격으로 길게 박아 회의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것을 스테이트 바닥(Slatted Floor)이라 부르는데 병아리들이 더위를 덜 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장마가 저도 습한 바닥을 밟지 않게 되므로 여름철 육추에는 큰 도움이 된다.

육추사에 수용하는 병아리 수수는 가을·겨울 표준의 80% 정도만 넣어 더위를 덜 타게 한다. 그리고 밀사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름철에는 특히 모이통과 물통관리를 신중히 하여 전날 먹다 남은 모이 위에 다시 새로운 사료를 채워주지 않도록 하고 물통은 매일 아침 닦고, 신선한 물을 하루 2~3차 갈아 준다.

15°C에서 21°C까지를 최적온도라고 보는데 29°C가 넘으면 최적온도일 때에 비하여 2배의 물을 먹게 되므로 물그릇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사료는 1주일분 이상을 한번에 구입하지 말 것이며 습한 땅 위에 저장하거나 육추사 안에 두지 말아야 한다.

폐온 이후부터는 날씨가 더울 경우 사료섭취량이 대단히 줄어들므로 1주일에 2~3일간은 항생제를 100ppm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비타민 첨가제를 10% 이상 더 첨가한다. 즉 여름 육추 사료는 열량과 단백질·비타민·무기물·복시톱 예방제 등의 함량이 봄·가을에 비하여 약 10% 이상 농축되어야 한다.

여름 육추 중 주의하여야 할 질병은 급만성 복시톱·계두·류코사이토준병이라고 하는데 그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다면?

여름 육추 중 가장 위험한 질병이 급만성 복시톱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스테이트 바닥

을 설치하면 철망 위에서 많은 시간을 기거하게 되므로 복시톱에 의한 피해가 적어진다.

계사 안에 스테이트 철망을 하지 않은 부분은 깔짚을 3일마다 한번씩 보충하여 바닥이 질지 않게 해야 한다. 물통과 모이통을 매일 닦을 수 없는 형태의 것일 때에는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 자비소독(煮沸消毒)하게 한다. 스테이트 바닥을 설치했을 경우에도 역시 땅이 철망 사이에 누적되어 복시톱충을 매개하므로 철망을 1주일에 한번씩 소독물로 닦아낸다.

그 외에 성계사에서 사용하는 기구·자릿것이 소독되지 않은 채 육추사에서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개·야조·파티·쥐 등의 침입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지아민 유연화합물(암프롤 프러스·복시텐)과 디오티(조아믹스 디오티)같은 복시톱 예방제를 사료에 혼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여하간 복시톱 예방약보다 계사 바닥을 항상 건조하게 하여 원충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계두예방—계두병은 연중 어느 때나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7~9월에 부화된 병아리에 많은 피해를 준다. 작년만해도 30일령 병아리에서 계두가 발생하여 50% 이상의 폐사를 내었고 빠른 것은 25일령부터 증상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모기가 나오는 여름철에만 예방접종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병아리의 일령별로 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그 증상은 처음에 콧등·뺨·입안·목구멍 기관·식도·밥통 항문·눈꺼풀 안쪽 등에 조그만 부스럼이 생기고 2~3일 후부터 눈물이 나오며 눈주위가 붉는다.

대개의 양계가는 눈이 진무론 다음에야 이 병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두에 걸리면 계두병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눈·콧구멍·기관에 생긴 물질이 터지면서 포도상구균·대장균·헤모필러스균·마이코플라스마 같 리셉티컴 등의 세균이 침투하므로써 디프테리성 호흡기 질환을 부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합병증은 초기에는 별로 없고 계두가

□ 대담 : 여름철 육추 □

5~7일 경과한 이후부터 호흡 곤란·결막염·인두부와 기관에 치즈같은 삼출액과 위막이 형성되는 심한 증세를 나타낸다. 증세가 여기에 이르면 항생제나 설과제로도 별 차도가 없으며 결국 약값만 많이 드리고 닭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두 예방접종은 7~9월에 부화된 병아리는 반드시 3~5일령 사이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35일령경에 2차 접종, 이듬해 5월에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요즘은 계두 예방접종을 하고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산란계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면 이상 말할 3차 예방접종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 접종해야 한다.

부로일러를 사육하는 경우에도 7~9월 병아리는 5일령 이전에 꼭 접종해야 한다. 그 이외의 달에는 20일령경에 1차, 56일령경에 2차 접종을 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접종 프로그램은 친호 부화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다. 1차 접종 시엔 바늘 한개로만 접종했다. 계두에 이미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면 항생물질·비타민A·음수용 소독약을 사용하여 지프테리성 계두로의 발전을 막도록 해야 한다.

류코사이트준병—근년에 와서는 병아리에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 증상도 빈혈·각혈·피하 및 근육내출혈·녹변 등 구구하여 병아리에게 심한 피해를 준다. 이 병은 직경 1mm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닭모기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계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렵고, 계사 주위에 풀썩이나 웅덩이에 D.D.T.나 B.H.C, D.D.V.P등의 살충제를 뿌려 닭모기의 번식을 억제하도록 한다.

사료에 피리메타민 또는 피리메타민과 설과디메독신과의 합제를 혼합하여 먹이면 예방에 효과가 있다. 대개 6~9월 사이에 많이 발병하고 그 이외의 계절에도 발병된 예가 있어 피리메타민 첨가제를 연중 사용하는 사료 회사도 많다.

가을·겨울·초봄 병아리의 단점이라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는가?

육성 중에 사양기술면에서의 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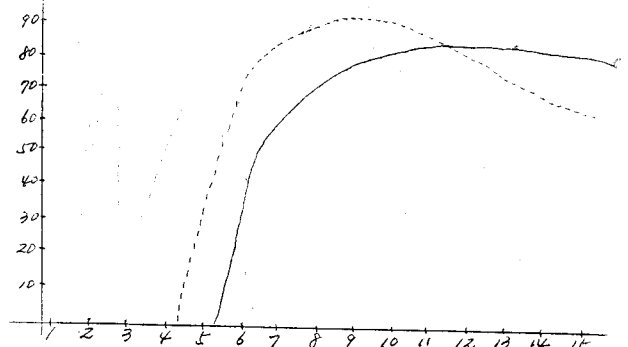
① 흡기 때문에 세포의 번식이 활발하지 못하다.

② 일조시간이 짧아 모이를 먹고 활동하는 시간이 적으므로 체성장이 원활하지 못하고,

③ 춥다고 계사내의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분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로 호흡기를 악화 호흡기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환기 불량으로 계사 바닥이 다습하게 되어 만성폭시듬증 및 기타 기생충으로 닭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④ 또한 가장 큰 난점으로는 가을 겨울추들이 중추 대추기를 지날 때, 일조시간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자극을 받아 성숙이 너무 촉진되어 체구가 여물기도 전에 30g 이하의 왜소란을 조산(早産)한다는 점이다.

< 제 1 도 > 조산한 닭의 산란피크와 산란 지속성과의 관계



※...선 커브는 조산한 가을 겨울추의 산란곡선, 산란지속성이 약하다. —선 커브는 적기에 산란한 여름, 늦은 봄추의 산란곡선 비교적 산란피크는 높지 않으나 높은 산란율을 오래 지속하고 폐계 발생이 적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산한 닭은 산란피크는 제법 높게 올라가지만 산란지속성이 약하여 곧 급강하게 된다.

난중을 보면 정상 산란에 비하여 약 2g이 작고 난중 증가가 아주 느리다.

이상과 같은 단점 외에도 탈항증이 많이 나오

며, 난추증 등 생식기계의 질환이 다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겨 기른 닭과 여름추가 받는 일조 변화와 같은 일조변화를 인공적으로 받은 닭과의 산란능력을 소개한다(Poultry Tribune, 1964).

끝으로 겨울추를 가지고 자연 일조시간에 말

〈표 1〉 자연 일조와 인공 일조가 산란능력에 미치는 결과

부 화 일 자	일 조 변 화	18 주 체 중	50%산란일령	헨하우스산란수	8개월령난중
1958년 12월 6일	점감점등 20~13시간	3.06파운드	188일	249개	57.8g
	자연일조	2.89	170	233	55.7
1960년 12월 20일	점감점등 21~14시간	3.25	187	210	59.0
	자연일조	3.10	168	188	55.5

여름 병아리를 기르는데 유리한 점을 든다면

첫째 무엇보다도 여름추는 산란계가 되어 난중과 산란지속성이 좋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을·겨울추는 중추·대추시기에 해가 급속도로 빨라지기 때문

에 조산(早産)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르는 피해가 큰 반면 여름추는 반대로 성성숙기에 해의 길이(일조시간)가 짧아지므로 조산할 염려가 없고 체성숙과 성성숙이 일치되어 산란하기 때문에 초산 난중이 좋고 장기 다산한다는 점이다.

〈표 2〉 델라웨어대학 2년간의 연구 성적

부 화 된 월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개당 56.6g 이상의 대란율	9개월령때%	35	51	64	75	75	71	70	72	65	52	34	32
	1년간평균%	63	71	74	79	82	78	79	78	76	67	56	60

참고로 월별로 부화된 병아리의 대란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Poultry T. 1963. 5.21).

둘째 초생추 대금이 싸다.

11~12월이 되어 유리하다.

셋째 육추시 연탄비와 방한시설비가 겨울추에 비하여 아주 적게 든다는 점이다.

여섯째 봄에 육추한 병아리가 산란이 감소하고 환우할 때의 보충제로서 가장 알맞게 쓸 수 있다.

넷째 여름 육추한 닭에서는 동계 휴산성이 그 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일곱째 여름 농한기의 노동력을 육추에 이용할 수 있는 등의 잇점이 있다는 것이다.

체신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우편번호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편번호란 우편물을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행선지를 숫자로 부호화한 것으로 우편물의 배달우체국과 관할구역을 번호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기재 요령은 먼저 수취인의 주소를 쓰시고 봉투 표면 윗쪽 바른편의 기입란에 아라비아 숫자로 수취인 주소지 우편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를 우편물마다 기입하는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편물의 보다 빠르고 바른 전달을 위하여 발송하시는 우편물에는 반드시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하시도록 협조바랍니다.

서기 1970년 6월 일

광화문 우체국장